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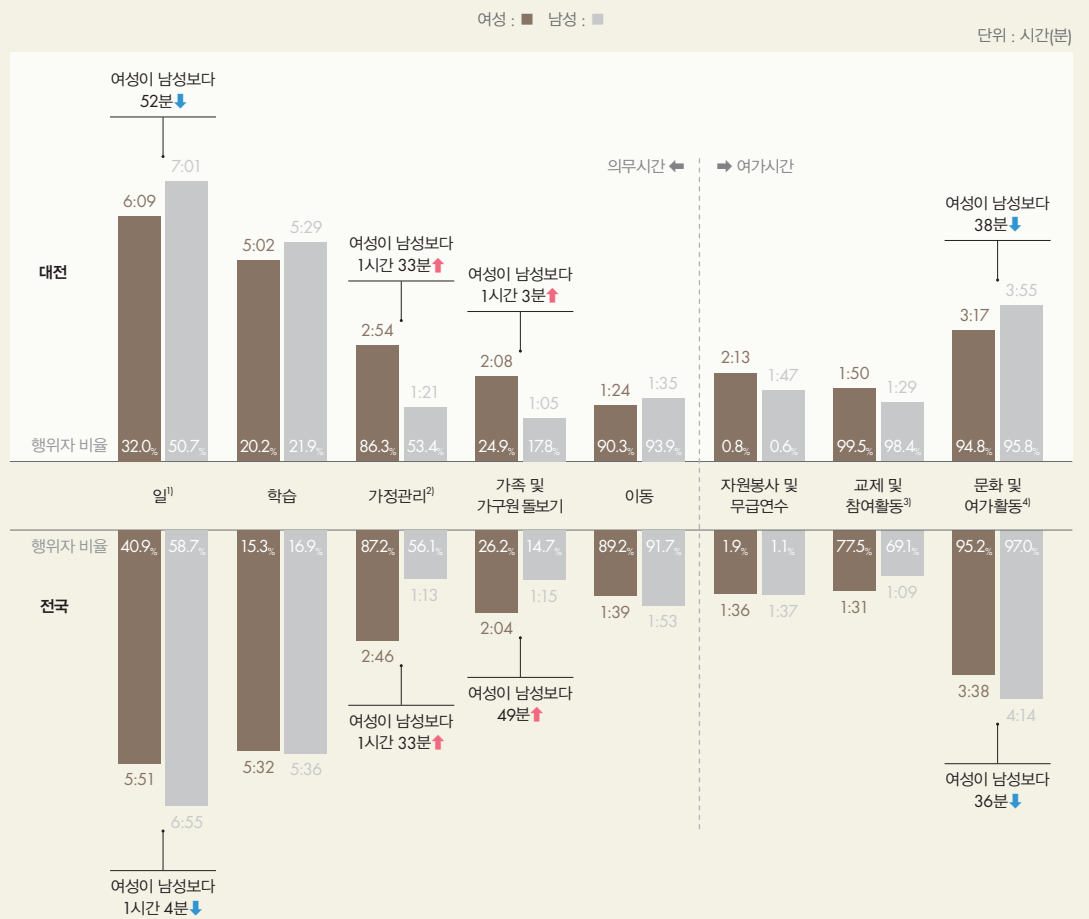
대전 여성의 생활시간 탐구 “24시간이 모자라”

통계청은 1999년부터 5년마다 국민들이 하루 24시간을 어떤 형태로 보내고 있는지 생활시간을 조사해 공개하고 있다. 생활시간조사에서 평균시간은 ‘전체 평균시간’과 ‘행위자 평균시간’으로 나뉜다. ‘전체 평균시간’은 특정 행동을 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조사 대상 전체로 집계한 평균시간을 의미하며, ‘행위자 평균시간’은 특정 행동을 하루 24시간 중 10분 이상 한 사람들만의 평균시간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주요 행동을 실제로 한 대전의 행위자 비율과 이들의 평균시간은 어떻게 나타날까?

대전, ‘가사노동’ 시간, 성별 격차가장커

‘가사노동’(가정관리, 가족 및 가구원 돌보기)과 ‘일’, ‘문화 및 여가활동’에서 성별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대전 여성 86.3%가 집안일을 하고 평균 2시간 54분을 사용하며, 24.9%가 가족을 돌보고 평균 2시간 8분을 쓴다. 남성보다 가정관리는 1시간 33분, 가족 및 가구원 돌보기는 1시간 3분 더 길다. ‘가족돌봄’은 전국(남성 대비 여성 +49분)보다 성별 격차가 더 크다. ‘일’은 남성이 여성보다 행위자비율도 높고 평균시간도 길었으며, ‘문화 및 여가활동’을 한 비율은 비슷하나 평균 사용 시간은 남성이 더 많다.

주요 행동별 행위자 비율 및 평균시간(2019)



- 2019년 생활시간조사는 전국 12,435 표본가구 내 상주하는 만 10세 이상 가구원 약 27,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함
- 2019년 생활시간조사의 행동분류는 대분류 9개, 중분류 45개, 소분류 153개로 구성되어 있음. 구체적인 행동분류표는 통계청 보도자료(‘20.7.30.’), 『2019년 생활시간조사 결과』를 참고 바람
- 주행동을 기준으로 평일, 토요일, 일요일을 포함한 모든 요일의 행위자 평균 생활시간 자료를 활용함
 - 주행동
 - ① 10분 간격의 시간대에 한가지 행동을 한 경우 그 행동
 - ② 같은 시간대에 두 가지 이상의 행동을 한 경우 가장 길게 한 행동이나 응답자가 주관적으로 주된 행동이라고 판단한 행동
- 행위자 비율: 특정행동을 10분 이상 한 사람(행위자)의 비율
- 행위자 평균시간: 행위자들의 평균시간
- 잠, 식사, 개인위생 등 개인유지를 위해 필요한 필수시간은 제외함
- 출처: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 1) 조직 및 창업활동 등 포함
 - 2) 음식준비, 의료관리, 청소 및 정리, 차량 관리 및 유지, 반려 동물 및 식물 돌보기, 상품 및 서비스 구입 등 포함
 - 3) 대면교제, 공동체 문화, 사회 행사 참여, 종교활동 등 포함
 - 4) 관광활동, 미디어를 이용한 여가활동, 스포츠 및 레포츠, 게임 및 놀이, 휴식 관련 행동 등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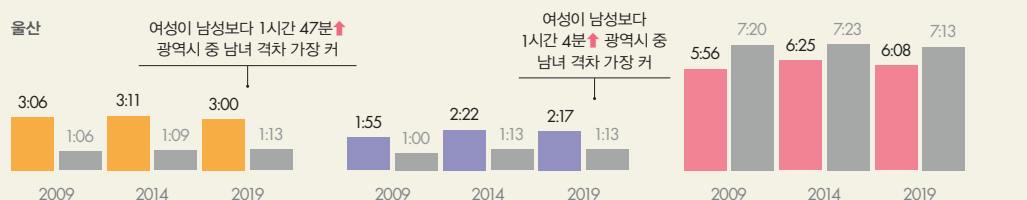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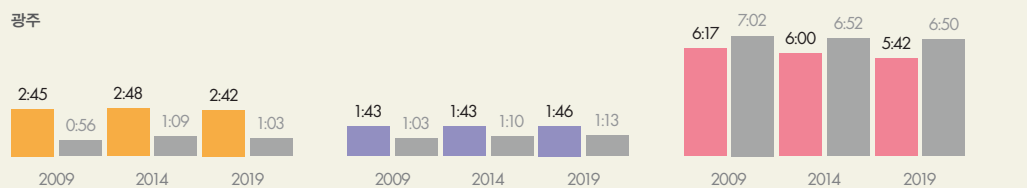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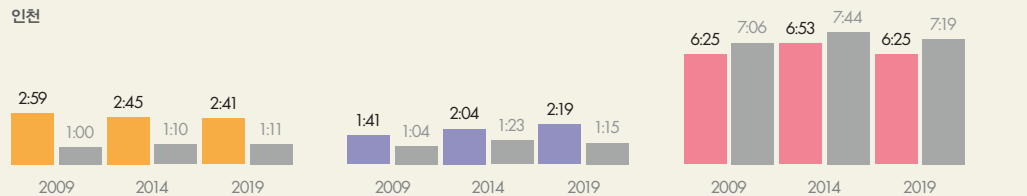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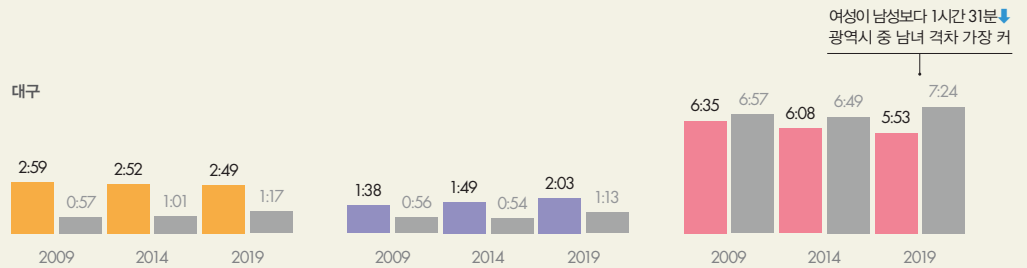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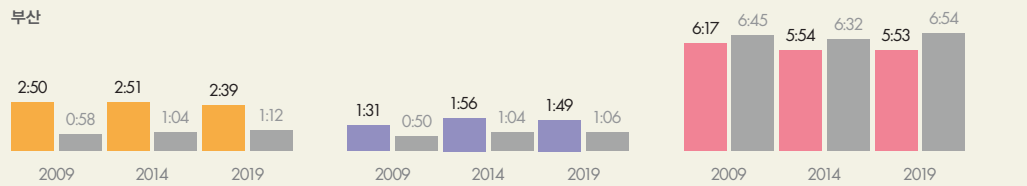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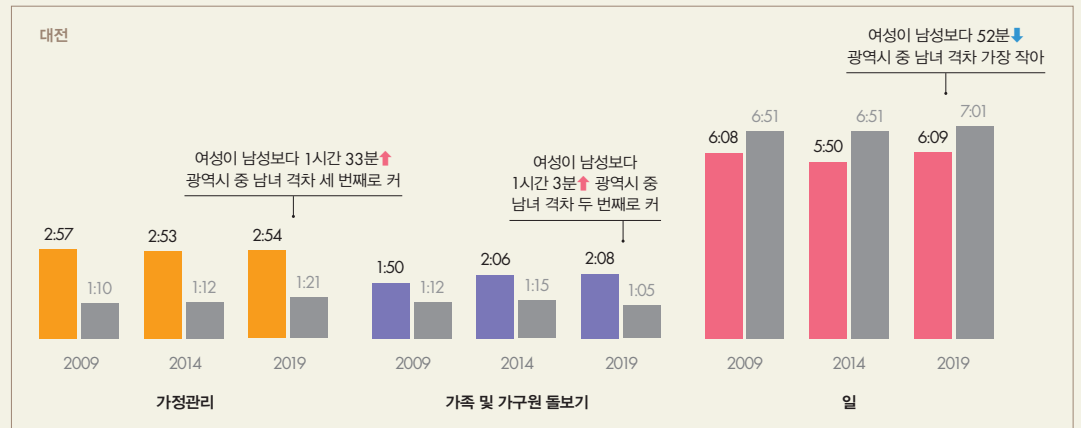
대전 '일' 시간
성별 격차 줄었지만,
'가사노동' 시간 격차는
여전히 커

가사노동 중 '가정관리'를 한 대전 여성의 평균시간은 2009년 평균 2시간 57분에서 2019년 2시간 54분으로 다소 줄었다. 대전 남성의 가정관리 시간은 2009년 1시간 10분에서 2019년 1시간 21분으로 늘었다. 남녀 차이가 이전보다 줄어들었으나 여전히 간극은 크다. 반면 '가족 및 가구원 돌보기'를 한 대전 여성과 남성의 평균시간 격차는 2009년 38분에서 2019년 1시간 3분으로 오히려 벌어졌다. 남성의 일 평균시간은 여성보다 꾸준히 길지만 성별 격차는 감소하면서 2019년 6대 광역시 중 가장 작다. 울산은 2019년 가사노동과 일 시간에 있어서 남녀 차이가 광역시 중 가장 크다.

6대 광역시 가사노동 및 일 행위자 평균시간

여성 : ■ ■ ■ 남성 : ■ ■ ■

단위 : 시간(분)



대전 여성, 남성보다 1시간 3분 더 '돌봄노동' 하고 있어

대전여성 중 '음식준비'에 시간을 10분 이상 사용한 비율 76.8%, 남성 31.4%로 나타났다. 가사노동 항목 중 성별 비율 격차(남성 대비 여성 +45.4%p)가 가장 컸으며, 평균시간은 여성이 47분 많다. 남녀 평균시간 차이가 가장 큰 항목은 '가족 및 가구원 돌보기'다. 남성 중 17.8%가 돌봄노동을 하고, 이들의 사용시간은 1시간 5분이다. 반면 여성의 24.9%가 평균 2시간 8분 돌봄노동을 하고 있다. 남성보다 7.1%p 높은 비율이며, 1시간 3분 더 길다.

·세부항목 중 주거 및 가정용품 관리, 차량 관리 및 유지, 기타 가정관리는 제외함
·출처: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피곤함을 느끼는 이유' 상위에 여성은 '양육', '가사' 포함된 반면, 남성은 순위권 밖

여성과 남성은 '줄이고 싶은 일'과 '피곤함을 느끼는 이유'에 대해 '직장 일'을 1위로 꼽았다. 그러나 여성은 줄이고 싶은 일로 '가사'와 '양육'을 3, 4위로 선택한 반면, 남성은 '양육'만이 5위에 자리했다. '피곤한 이유'로 여성은 '양육', '가사'가 4, 5위로 나타났으나 남성의 5위 안에 '가사'와 '돌봄'은 없었다.

·응답 항목을 비율이 높은 순으로 1위부터 나열했으며, 상위 5순위까지만 제시함
·출처: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2020년 제3회 젠더 콜로키움(통합 18회)

팬데믹과 기후위기 시대의 젠더: 에코페미니즘 관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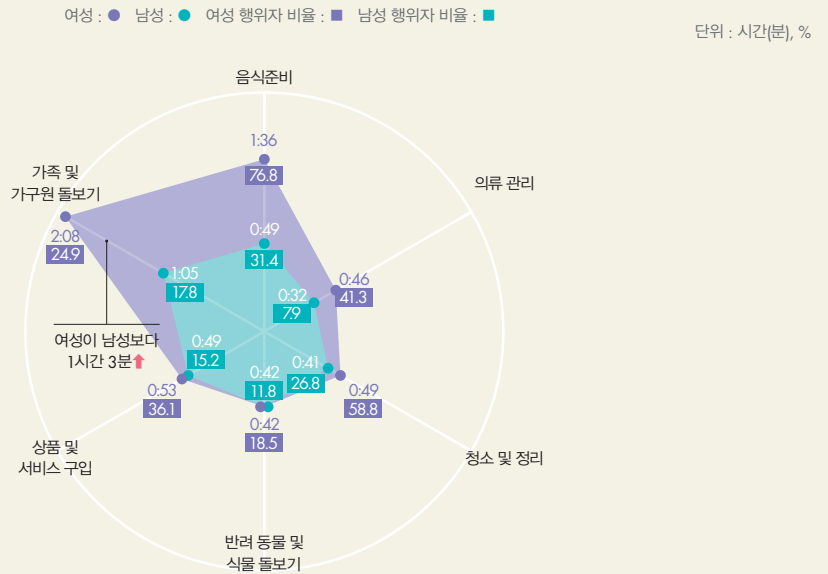
8월 18일 열린 젠더 콜로키움에서 『팬데믹과 기후위기 시대의 젠더: 에코페미니즘 관점』을 주제로 여성환경연대 김양희 공동 대표의 발표가 있었다. 김 대표는 에코페미니즘 시각에서 '코로나19'는 생태계 붕괴가 주는 메시지이며, 젠더 간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켰다고 강조했다. 또한 팬데믹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생활방식, 사회적 관계는 전환되어야 하며,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실천방안을 이야기할 수 있는 여성들의 정치적 연대가 필요함을 시사했다.



김양희
여성환경연대 공동대표

대전 세부항목별 가사노동 행위자 비율 및 평균시간(2019)



생활시간에 대한 인식(2019)

향후 줄이고 싶은 일				평소 피곤함을 느끼는 이유			
순위	항목	여성 (%)	남성 (%)	순위	항목	여성 (%)	남성 (%)
1위	직장 일	17.9	33.6	1위	직장 일	19.1	29.6
2위	자기 학습	10.6	9.5	2위	자기 학습	8.8	8.3
3위	가사(손자녀양육 제외)	8.6	3.0	3위	건강상태	7.5	5.4
4위	(손)자녀 양육	5.8	3.0	4위	(손)자녀 양육	7.1	2.7
5위	교제와 사회활동	3.2	1.0	5위	가사(손자녀양육 제외)	6.2	0.8